

전도 종족의 선교 자원화 전략

- 중국 꾸이저우성(貴州城) 웨이닝현(威寧縣)에 살고 있는 따화미아오족(大花苗)을 중심으로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 연구소 CFR 6th Mission Team

서론

랄프윈터¹에 의해 ‘종족’²단위의 선교 단위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큰 우선선교대상은 ‘미전도 종족’³이었다. 그 방법과 전략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전세계적으로 약 12,000⁴여 개의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관심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들을 향한 대표적 전략은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비거주 선교전략’, ‘도시선교전략’, ‘전문인 선교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미전도 종족 대상 국가 가운데 중국 역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이런 형태의 전략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전 인구의 7%가 넘는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다. 많은 선교사와 교회,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위에 전략들에 바탕으로 한 많은 노력을 통해

¹ 랄프윈터(Ralph Winter)박사는 미국세계선교센터(USCWM) 책임자이며 미션 퍼스펙티브스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² 1982년 3월 시카고에서 이틀 동안 열렸던 '세계선교를 위한 로잔위원회' 대회의 미전도 종족 회의 (The Unreached Peoples Meeting)에서 종족과 미전도 종족 집단에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이 정의에서 먼저 종족에 대해서는 “언어, 종교, 인종, 주거, 직업, 계급이나 계층, 처지 등이거나 혹은 이것들이 결합된 것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상호 간에 공동의 유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들의 상당히 큰 집단”(a significantly large grouping of individuals who perceive themselves to have a common affinity for one another because of their shared language, religion, ethnicity, residence, occupation, class or caste, situation, etc. or combinations of these)으로 보았다.

³ 그리고 미전도 종족 집단은 종족집단은 "자신의 종족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집단"(a people group within which there is no indigenous community of believing Christians able to evangelize this people group)으로 본 것이다.

⁴ 미전도 종족의 숫자에 대해서는 선교계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진 문제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0년 런던에서 열렸던 미전도종족입양 자문회의 (Adopt-A-People Consultation)에서는 12,000 개 종족설로 절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게 됐다. 윈터의 미국세계선교센터(USCWM)에서 낸 미전도종족입양운동 자료는 12,000 미전도종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곧, 무슬림 종족이 4,000 개, 부족이 3,000 개, 힌두교 종족이 2,000 개, 중국의 종족이 1,000 개, 불교 종족이 1,000 개, 기타 1,000 종족 등을 합쳐 미전도 종족은 12,000 개라는 것이다.

놀라운 복음화율의 성장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⁵은 아직도 약 482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 주요 선교대상국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선교사들의 접근이 용이한 대부분의 지역은 복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 되었지만 중국의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은 정치적, 지역적 제약에 의해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선교의 문은 아직도 굳게 닫혀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선교적 전략의 하나로 외국선교사가 아닌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전도종족’을 통해 미전도 종족의 선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 Operation China에 자료에 의하면 묘족이라는 큰 그룹 속에는 44개의 세부적인 종족으로 나누어 진다. 이 44개의 세부종족 가운데 높은 복음화율을 가진 전도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은 대화묘족 한 종족 밖에 없다. 이 대화묘족이 다른 43개의 묘족들을 향한 선교에 동원된다면 외국 선교사들의 제한된 선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 선교의 열매들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이 한 종족이 여러 세부종족으로 나뉘는 때, 하나의 전도종족을 선교에 동원함으로 그 세부 종족을 포함한 전체 종족을 선교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는 ‘선교자원화’라고 정의하고 본문에서 대표적인 전도 종족인 대화 묘족의 소개와 더불어 선교자원화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과 그 대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대화 묘족

(1) 대화묘족 개요

대화묘족(大花苗族, The Big Flowery Miaos)은 묘족⁶의 여러 갈래 중의 한 갈래로서 주로 귀주성의 서북부와 운남성의 동북부, 즉 귀주성과 운남성의 접경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대화 묘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귀주성의 웨이닝, 쉐이청, 푸안, 쩐닝, 쩌원, 허쥡 지역, 운남성의 우땡, 루추안, 푸민, 쉐이엔, 안닝, 루핑 지역, 사천성의 판즈화 지역이다. 대화묘족의 인구는 1990년 통계로 300,000명이다. 당시 전체 묘족의 인구는 7,348,035 명이다.⁷

⁵ 중국의 소수민족은 공식적으로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위적인 구분이므로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종족^족은 480여 개의 종족으로 분류된다

⁶ 묘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의 한 민족으로 주로 중국의 서남부에 분포하고 있다. 2000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 총 8,940,116명의 묘족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귀주성에 살고 있다. 나머지 절반의 묘족 인구는 중국 서남부의 운남성, 호남성, 사천성, 광서성 등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

⁷ <http://www.am-ccsm.org/operationchina/a-hmao.asp> 참고

묘족의 민족적 이주와 함께 귀주성과 운남성으로 이주한 대화묘족은 주변의 이족, 한족, 회족, 부이족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화묘족은 이족들에 의해 노예 생활을 했다. 이족들은 묘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세금을 부과했다. 묘족들의 이와 같은 고난의 역사는 1900년대 초에 Samuel Pollard 가 묘족들을 만날 때까지 계속 되었다.

대화묘족은 40개 이상의 묘족 방언 중에 계통의 방언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대화묘족 스스로는 자신을 A-Hmao(阿賀)라고 부른다. 중국정부는 행정적 구분으로 이들을 대화묘족이라고 부른다. 대화묘족이 사용하는 묘어(苗語)와 소화묘족(小花苗族)이 사용하는 묘어는 전혀 달라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대화묘족은 주로 농업과 가축사육을 한다. 1949년 해방 이전에는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족이 소유하고 이족 마름이 관리하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대화묘족이 주로 경작한 작물은 hoes, plows, rakes, axes, sickles, bamboo pack baskets and ropes 이다. 주로 화전법을 사용하여 농지를 산지지형에서 농지를 확보해 나갔다. 가축은 주로 염소, 말, 양과 돼지를 키웠다. 대화묘족은 사냥에도 능숙한데, 사냥도구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 가내 수공업으로 면직물을 직조하여 옷을 만들고, 대나무로 여러 가지 도구와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림-1 대화묘족 분포⁸⁾>



<사진-1 대화묘족 사진>

(2) 대화 묘족의 기독교 현황

1) 복음화 율

웨이닝 현의 묘족은 약100년 전 복음을 받아 들여 현재 대화묘족은 묘족

⁸⁾ <http://www.am-ccsm.org/operationchina/a-hmao.asp>

가운데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다. 대화 묘족 중에서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0%, 이며 기독교인 비율은 52%이다.⁹

대화묘족은 내지회, 순도공회, 침신회, 오월절회, 인식교, 성광회 등 영국과 미국의 10여종 교파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 가운데 내지회와 순도공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2) 기독교 내지회

내지회는 영국인 James Hudson Taylor가 1865년에 세운 중국기독교내지회(chian Inland Mission)에 의해 시작 되었다. 대화묘 역시 내지회를 통해 복음을 처음 들었다. 1884년 영국 선교사 바이더리(白德禮:Samuelr Clark) 목사는 귀주성 안순(安順)을 거쳐 1904년 웨이닝 거뿌(葛布)에 들어왔다. 당시 묘족은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렵 위주의 생활을 하며 살아 왔다. 1901년에도 지주계급은 온갖 수법으로 착취를 해 많은 사람들이 멀리 피난해 수렵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대화 묘족인 1903년 쟁마지아(張馬加)와 몇몇이 역시 내지회 출신 영국 선교사인 당쥐런(黨居仁: J.R Adams) 목사에 의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면서 복음 전파가 시작 되었다. 내지회가 초기에 안순으로 들어와 이후 웨이닝 그 후 다시 거뿌로 이동하여 1905년 거뿌 교회와 1909년 거뿌교회의 분회형태의 따송(大松)교회를 세우면서¹⁰ 당시 그 지역의 대화묘족은 활발하게 복음화가 되었다

3) 기독교 선도 공회

요한 웨슬레가 1738년 설립한 순도공회의 파송을 받은 부어거리(栢格理: Samuel Pollard)는 대화묘족에 복음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끼친 대표적인 선교사로 손꼽히고 있다. 1904년 7월 12일 운남성 짜오통(昭通)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버클리에게 웨이닝현에 살고 있는 대화묘족이 찾아와 책을 읽는 부어거리목사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 이들은 복음을 들은 지 4일만에 다시 돌아와 그에게 예수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부어거리목사는 운남의 량산(涼山)으로 전도하러 갈 계획을 포기하고 묘족지역에 먼저 전도하기로 결심한다. 1905년 웨이닝현의 스먼칸(石門坎) 지역에 스먼칸 순도공회를 설립하면서 스먼칸 교회를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된다.

⁹ <http://www.am-ccsm.org/operationchina/a-hmao.asp>

¹⁰ 1909년 음력 7월 15일 따송 기독교 내지회 에서 복음당을 헌당

4) 현지 상황

본 팀의 현장 리서치 결과 현재 대화 묘족의 전체의 복음화율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었지만, Operation China에서 제시한 52%가 나름의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04년 이후 기독교 내지회에서 세웠던 거부 교회¹¹와 따송 교회는 아직도 그 예배당과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독교 선도공회의 영향을 받은 스먼칸 교회의 경우 그 형태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거부 교회의 경우 성도 수가 현재 5,000명 이상이며 대화 묘족 교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부흥되고 있는 교회이다. 그리고 따송 교회¹²는 현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1,000명 이상이며 전체 성도 수는 4,200명 정도이다. 대부분 묘족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¹³, 중국어 성경, 찬송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교회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1900년대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다음으로, 1949년 중국이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하게 되는 영향으로 그 쪽 지역으로 계속적인 접근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전반적인 노령화 현상 역시 직면한 문제이다. 즉 앞으로 신학을 배운 젊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한 교육과 목회가 절실히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2 따송교회 예배 모습>



<사진-3 따송교회 예배 모습>

¹¹ 현 거부 교회의 위치는 꾸이조우성 뻬지에띠취 허장씨엔 차이선쩐 거부쌍 (貴州城畢節地區 赫章縣 財神鎮 葛布鄉 葛布教會)이다.

¹² 현 따송 교회의 위치는 꾸이조우성 뻬지에띠취 웨닝씨엔 쉘산쩐 따지에쌍 (貴州城畢節地區 威寧縣 雪山鎮 大松教會)이다. 따송 교회의 경우 주위 3개 향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며 예배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세 차례 드리게 되며 특히 주일의 경우 9~11시 성경공부와 찬양, 11~14시는 예배로 드리고 있다.

¹³

구약성경은 묘족언어로 번역 되지 않았음.

2. 선교 자원화 전략

(1)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과 평가

전도종족의 개념과 선교자원화에 대한 분석에 앞서 현재까지의 중국을 포함한 미전도 종족의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에는 분류와 관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크게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비 거주 선교전략, 도시선교전략, 전문인 선교전략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전략의 내용과 그의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미전도 종족 입양 전략 (Adapt-A-People Program)

1990년대 중반부터 선교단체 (1993년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출범)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은 '미전도종족을 입양하는 것'이다. 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전도 종족 입양'의 구체적인 전략은 AAP의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세 가지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첫째는, 중보기도의 확산, 둘째는, 정탐 사역, 셋째는, 선교사를 선발하고 훈련하여 입양한 종족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 단계를 통해 총체적으로 한 종족을 복음화 시키는 전략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미전도종족 입양 현황은 28개국 87개 종족이며, 미전도종족 입양에 참여한 교회는 43개 이다. 현재 약 20개 교회와 선교단체에 의해 중국의 17개 미전도 종족들이 입양되어 전략적 선교가 이뤄지고 있다.

2) 비거주 선교전략 (Nonresidential Missionary Strategy)

한 때 선교전략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린 비거주 선교전략은 해외선교사로서 접근이 제한되는 민감한 지역에 있는 종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사역 대상 지역에는 거주하지는 않고 인근의 자유로운 지역에 거하는 전략이다. 주로 사업가, 학생, 관광객 등의 신분으로 교회와 선교단체를 네트워크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통해 전략을 도출해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비거주 선교의 세가지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현지에 관한 조사와 연구이다. 둘째, 위 정보를 토대로 한 효과적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셋째, 창출된 전략을 교회와 단체들과 함께 적용하고 피드백하는 것이다.

3) 도시 선교 전략 (Urban Mission Strategy)

흔히 미전도종족하면 시골, 농촌, 오지의 이미지를 연상한다. 그러나

세계가 급속히 도시화가 되면서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 1949년 이전까지는 중국 남부의 도시들에서 소수민족들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화와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로 한족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베이징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나눈 56개의 모든 소수민족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상해의 경우 39개의 민족을, 톈진의 경우 27개의 민족을, 난징과 선양의 경우 각각 33개의 민족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중국 소수민족 인구의 1/3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도시화 현상은 도시 생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치관의 혼돈 상태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도시선교는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도시 속에 거하는 민족 구성원 간에 네트워크 또한 복음의 통로로 이용 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고향과 오지에 있는 촌에 이르기 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4) 전문인 선교 전략 (Tentmaker Mission Strategy)

전문인 선교는 직업적 전문성과 사역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력¹⁵ 이 교회와 선교 단체의 파송을 받아 법적 또는 사회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소위 선교 접근 제한 지역 또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하며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 기업,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가능하며 실제로 전문인 선교사들이 팀 사역을 통해 선교 베이스 구축, 교회 개척, 현지 엘리트의 제자화에 성공하면서 매우 유용한 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식 선교사들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 대한 선교 전략적 대안으로 전문인 선교는 건강한 선교, 고효율 저비용 선교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¹⁶

지금까지의 이러한 선교 전략들은 그 동안 많이 모호하던 미전도 종족 선교에 실질적인 방법과 어프로치를 제공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존재한다. 우선 1993년 이후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펼쳐진 미전도종족 입양운동은 아직까지 국내 지역교회에 크게 확산되지 못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미전도종족 입양 현황은

¹⁴ 종족과도시선교연구소(Institute for Mission to People And Cities), 한화룡 박사 “미전도 종족과 도시선교의 중요성”, 1998년 No.1 p20

¹⁵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전문인에 대한 정의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의미를 정리해 볼 때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전문가로서 혹은 신분상 전문가의 형태를 띠고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까지 확대 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¹⁶ “미전도 종족 선교와 전문인 선교의 과제” 2002년 12월 2일자 국민일보 함태경

전세계 28개국 87개 종족에 불과하며, 지난 98년 12월 23개국 71개 종족 입양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더디다. 특히 미전도종족 입양에 참여한 교회는 43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2000년 이전에 종족들을 입양했으며, 2000년 이후 참여한 교회는 8개 교회에 불과해 종족입양운동이 침체기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도시선교 전략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목회자 중심의 선교사이며, 많은 선교사가 도시에는 거주하나 실제 전문인 사역을 하고 있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즉 도시를 단지 주거지나 비자를 연장해 줄 근거지로 여길 뿐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러하듯 지금까지의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은 많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며, 지금의 전략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2) 전도 종족의 의미와 선교 자원화의 필요성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선교회로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이후, 140년 이상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¹⁸ 이후의 계속되는 선교의 노력에 의해 중국 복음화율은 현재 7%에 다다르고 있다고 추산된다. 그러나 중국은 482여개 소수민족 가운데 438개의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남아 있다.¹⁹ 지금까지의 많은 중국 선교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지역적 요인으로 인한 창의적 접근 제한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한 선교 자원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이미 44개의 소수종족들이 5% 이상의 높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다.²⁰ 선교학에서 통념으로 받아지고 있는 5% 기준의 복음화율을 통해 볼 때,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한 종족이 6%이상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종족 가운데 자생적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종족들은 전도종족으로 분류한다. 이 전도종족은 선교 자원화²¹를 통하여 동일 언어, 문화와 역사성을 지닌 같은 범주 안의 종족과 장기적으로 다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 가능성과

¹⁷ “미전도 종족 선교와 전문인 선교의 과제” 2002년 12월 2일자 국민일보 함태경

¹⁸ 허드슨 테일러는 1865년 7월 27일, ‘중국내지선교회 (Chinese Inland Mission)’를 공식적으로 창립하였다

¹⁹ Operation China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을 482개로 정리 할 수 있다. 그 중 미전도 종족 즉 5% 이하의 복음화율을 가진 종족을 정리하면 438개 종족을 추출 할 수 있다.

²⁰ 482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은 438개 종족이므로 나머지 44개의 종족은 5% 초과 즉 6%이상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종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²¹ 본 글에서의 선교 자원화는 한 종족이 여러 세부종족으로 나뉘는 때, 하나의 전도종족을 선교에 동원함으로써 그 세부 종족을 포함한 전체 종족을 선교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 한다.

중요성을 다음 세가지 논거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선교의 효율성

사실상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가 다른 미전도 종족에게 접근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총체적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선교가 구체적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인력과 재원을 선교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교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중국의 전도 종족을 양육, 훈련하여 선교 자원화하고 이들을 다른 미전도 종족의 선교에 동원 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선교 주체변화의 필요성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선교의 현황과 그 실태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 그리고 선교사의 노력으로 중국의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 졌고, 그 열매로 크리스천 인구가 1억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이제는 외국 선교사가 아닌 중국인 스스로가 자국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으며 와야 하는 것이다. 타국에 의한, 타국을 통한 선교가 아니라 중국 교회가 주체가 되는 그래서 중국 교회가 중심이 되는 선교 주체의 변화의 시점이 필요하다. 전도 종족을 통한 선교 전략은 내가 아닌 그들로 하여금 선교에 동원하게 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3) 선교 중국으로의 발판

많은 선교 전략가들은 앞으로의 세계 선교는 중국 크리스천이 중심이 된다는 즉, 선교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내다 보고 있다. 이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 내의 많은 소수민족들의 복음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안에서의 언어와 문화 역사가 다른 타 종족을 향한 전도는 한편으로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전도 종족의 선교 자원화를 통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파급효과가 커짐을 통해 선교 중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데 또 다른 장기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3) 선교자원화의 가능성과 한계

‘선교자원화’라는 개념을 다양하게 정리 할 수 있으나 현지 선교사들과 선교 전략가들을 중심으로 ‘선교자원화’와 비슷한 생각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선교자원화를 시작하고 구체적 성공의 열매들을 보는 곳을 발견하긴 쉽지 않다. 29%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의 경우에 있어 동일 언어와 문화인

자신의 민족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도는 상당히 이뤄졌지만 그 외 지역을 타겟으로 선교사로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는 중국 현지에서 ‘선교자원화’ 전략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전도 종족을 통한 선교자원화 전략이 봉착하게 되는 세가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자원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

서구 근대 선교의 3대 흐름을 Ralph Winter는 1792년 윌리엄 케리의 해안선 선교시대, 1865년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시대, 그리고 1930년대의 타운젠드와 맥가브란의 미전도종족선교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선교 흐름은 조금은 모순되어 보인다. 현재까지 한국의 대 중국 선교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지하신학교 형성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중국 선교사 가운데 동북3성에 약 90%에 달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뚜렷한 전략이나 계획 없이 조선족을 거점으로 언어, 문화적 개념을 넘지 못한 선교 현지 중복 투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 투자의 인식과 더불어 최근에 많은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미전도 종족을 통해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지만 그 현실의 적극성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뒷받침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미전도 종족 선교에 있어 선교자원화라는 현지인을 통한 폭발적 선교의 가능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교자원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은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다. 즉 소수민족 가운데 전도종족들을 선교에 동원한다는 선교자원화에 대한 개념적 인식의 부재가 선교자원화 전략의 주요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2) 전도종족에 대한 접근의 한계

많은 소수민족들의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 정부의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소위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출입하는 것은 지역 정부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선교 자원화 전략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전도종족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선교의 중요성과 당연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말씀집회나 선교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접촉까지도 상당한 제약과 감시 속에 있기에 이들을 접촉한 다는 것은 무척 힘들 일이다.

3) 소수민족에 적합한 선교훈련 프로그램의 부재

수 백년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 있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이 각국의 문화와 환경에 맞춰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다. 이것들을 바로 교육과 환경이

열악한 소수민족 전도종족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장기간의 현장감각과 선교전략을 연구한 사역자와 현지 교회 리더들에 의한 현장 지향형 선교 전략이 속히 도출되어야 할 때이다.

3. 선교 제언

지금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의 역사적 흐름, 복음화된 종족으로써의 대화 묘족 그리고 전도 종족의 선교자원화의 중요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지난 선교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전도종족이 다른 미전도 종족 선교의 주체가 되는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의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교자원화’ 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선교자원화 전략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앞서 지적인 선교자원화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지역 연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도 종족의 선교 자원화에 있어 ‘선교자원화’라는 개념의 인식의 부족을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도 종족의 정체성과 분포, 그리고 대상 종족의 복음화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전도 종족의 선교 자원화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지역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 될 수 있다. 6% 이상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종족 분류와 실제적인 종교 현황에 대한 사전 조사, 그리고 실제 현장 리서치를 통한 확인 정탐, 그리고 사후 분석과 전략 도출들이 지역 연구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지역 연구가 잘 이루어 진다면 선교 자원화의 인식 부재의 어려움은 극복될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 것이다.

(2) 지속적인 접촉점 마련

선교 제한 지역 즉 창의적 접근 제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근 전략 가운데 직접적인 접근 보다는 우회적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미전도 종족에게 지속적인 접촉점을 찾기 위한 우회적 접근 전략은 단순히 접근의 어려움의 문제 뿐 아니라 실제적인 소수민족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중국의 소수민족은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교육과 위생, 지역개발, 농업개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소수민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은 국제적인 구호 단체나 NGO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는 이러한 외국과 국제기구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소수민족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필요들을 채워 줄 수 있다면 소수민족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점들을 통해서 우회적이고 장기적인 선교 전략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100년 전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민족의 80% 이상이 복음화 된 중국의 대화묘족의 경우,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선교자원화가 필요한 민족이다. 현재 선교자원화를 위한 접촉점으로서 대화묘족을 상대로 교육과 위생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대화묘족의 사례를 통해 교육과 위생을 통한 소수민족과 중국 정부와의 접촉점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본다.

1) 교육

현재 귀주성에는 1000개 이상의 소학교가 있고, 이 중 150개 이상이 민족소학교이다. 소학교는 6년제이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다 존재하는 完小가 있고, 부분적으로 학년이 운영되는 소학교도 있다. 소학교의 학비는 학비와 교재비, 운동복비 까지를 포함한 서잡비(書雜費)라고 하며, 소학교가 위치하는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귀주성 웨이닝현의 5개의 소학교를 리서치 한 결과, 한 학생의 1학기 書雜費는 50~60원 정도였다. 그러나 귀주성의 1인당 평균 소득이 513.52원²²인 것을 감안할 때, 1년에 100원 정도의 학비로 부담하기 힘든 정도이다.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 환경과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취학 연령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와 같은 교육의 어려움은 상급학교 진학률에서도 나타나는데, 9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귀주성의 총 인구 중 28.1%가 문맹, 38.2%가 소학교 졸업, 25.0%가 중학교 졸업, 6.6%가 고등학교 졸업, 2.2%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여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교육을 중요시 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외부의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홍콩, 대만 등의 기업에서 귀주성에 소학교 건물을 지어주거나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귀주성 웨이닝현에 있는 소학교의 대부분은 매우 낡은 건물을 사용하고 교육 기자재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학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현재 대화묘족을 대상으로 귀주성과 웨이닝현의 교육국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 건물을 신축, 보수하고 묘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학용품 선물로 주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한 사역의 경우, 사역의 열매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재정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을 지어주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법 이외에도 방학 기간을 통해 외국인이지만 학생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수민족 학생들의 경우, 영어와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단기 학습 과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와 컴퓨터 이외에 체육과 음악, 공작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과목들로 커리큘럼을 짜서 접근한다면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용이하고 소학생들로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 사역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LA 팀과 한동대 CFR이 연합해서 연변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마음 학교’가 있다.

2) 위생

중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가에서 접촉점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긴박한 필요는 위생이다. 깨끗하지 못한 주위 환경과 하수, 상수처리 되지 않는 물, 전염병이 돌아도 제대로 치료 받을 병원이 없는 상황 등이 소수민족의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성장과 함께 자연 사망률이 점차 줄어 들고 있지만, 경제적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가난한 소수민족의 자연 사망률, 유아사망률은 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문을 열고 NGO들을 환영하는 가운데, 경제 개발을 돕는 NGO 뿐 아니라 위생 환경을 돕는 NGO에게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물로 인한 전염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유니세프에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우물 펌프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펌프는 공공재의 (free riding)과 기술의 부족으로 보수가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우물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현재 중국은 지속적인 위생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위생

교육과 의료 시설 설립을 들 수 있다. 현재 많은 단기 의료 사역이 시행되고 있다. 단기 의료 사역과 함께 위생 교육이 병행된다면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데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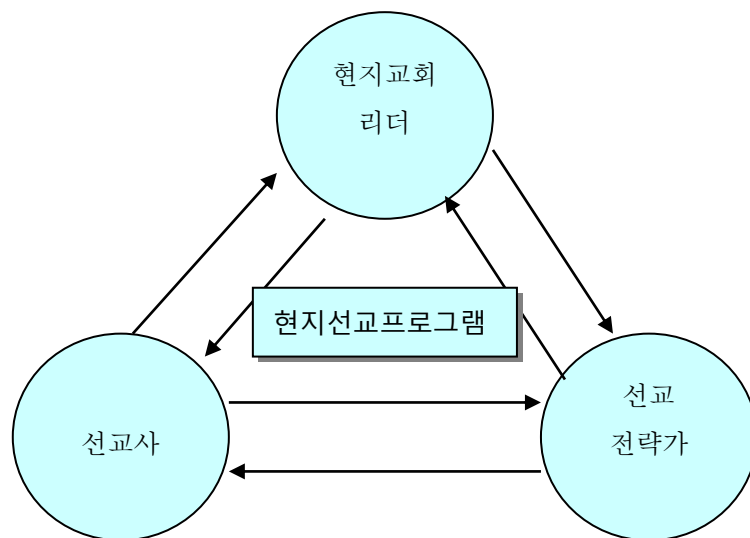
대화묘족의 경우, 아이들의 위생상태(손톱, 머리, 피부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중국 농촌 소수민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대화묘족과의 인터뷰 결과, 그들의 위생상태가 그토록 열악한 것은 그들에게 씻을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씻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위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방법으로 의료시설 설립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는 의료기계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에 따라 성능이 좋은 의료기계들을 새로운 의료 기계들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사회환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퇴직한 전문의들이 그들의 기술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필요한 지역과 잘 연결한다면 인력자원 또한 큰 무리 없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 기계들을 도입하고 의사들을 확보하여 병원을 개설한다면, 병원이 없고 약도 구할 수 없어 작은 병에도 생명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병원을 세우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내기에도 용이할 것이다.

3) 선교 프로그램

소수민족에 적합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구성원의 역할이 핵심이다. 현지 교회 지도자와 지역 선교사, 선교 전략가 간의 협의와 노력이 충분히 있을 때 가장 적실성 있는 선교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우선 현지인 리더가 필요하다. 현지 교회 리더의 요건은 우선 신학 교육과 더불어 선교사로써의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 즉 전도 종족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전도 종족의 교회와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제자 양육과 지역 교회의 협력을 통하여 선교 자원화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 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지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현지 선교사는 현지 교회 리더를 양육하며,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현지 리더를 양육하여 장기적으로 사역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전략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현지 리더와 더불어 선교 자원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 선교사를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지원 세력이 필요하다. 이는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선교 전략가로 구성

될 수 있는데 특히 선교 전략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교 전략가는 기존의 선교 모델을 분석하고 현장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도 종족에게 가장 적합한 선교 프로그램을 먼저 현장 선교사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2 현지 선교 프로그램을 위한 이상적 협력 모델>

결론

180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 선교의 역사에서 많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통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 그들을 통해 지금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 동일하게 현재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와 후원자들, 중보기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된 민족에게는 또 다른 선교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선교자원화’ 전략으로 정의하였다. 이미 복음화된 민족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교회가 자립적으로 성장하고, 양육되고 헌신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복음화 된 대화묘족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교회가 굳건히 서고, 대화묘족을 통한 묘족 선교, 소수민족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선교에 직접적인 방법과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때, 선교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회적인 방법에는 교육과 위생을 통한 사회개발 사역,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역, 재할 사역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우회적인 사역은 현지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계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우리는 어항 속의 물고기는 볼 수 있지만, 어항 속의 물고기는 될 수 없다.’는 한 선교사의 고백처럼, 소수민족 선교와 중국 선교는 이제 중국 소수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들을 선교 자원화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지역의 특징에 맞게 우회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전도 종족에게 선교 자원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이 될 때, 미전도 종족 선교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논문

- “21세기 중국 선교 전략” /임정환 침례신학대 목회 대학원 2001
- “중국 소수민족의 상황과 선교 전략” /전진한 장로회신학대 신학 대학원 2001
- “21세기 중국선교에 관한 연구: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김기봉 한세대 신학대학원 1998
- “중국선교의 현대적인 전략 연구: 한족(주류민족)의 선교적 접근과 전략연구” /장유순 서울신학대 선교대학원 2001

서적 및 간행물

- “중국 미전도 종족과 선교 전략” 중국대학생선교회(CUM) 2003. 01
- 종족과 도시선교저널 / 종족과 도시선교 연구소(IMPEC) 1998 No.1, No12
- Operation China 2000

선교 기관

- AAP 한국미전도종족입양본부
- IMPAC 종족과 도시선교 연구소
- SIREN 전략정보네트워크선교사훈련학교
- METI 한국선교정탐훈련원
- PAMI 종족과 선교정보센터
- CUM 중국대학생선교회

학교

- CAAS 한동대 아시아 지역 연구소

Web Site

- <http://www.am-ccsm.org/operationchina/a-hmao.asp>
- http://www.bethanynorth.com/profiles/p_code6/2056.html
- <http://www.tribaltextiles.info/Galleries/A-hmao/A-hmao.htm>
- http://www.biblesociety.org/wr_375/375_05.htm
- www.infomekong.com/Brochures/Hmong%20brochure%20Mekong.pdf -13쪽
- http://www.zhaotong.gov.cn/html1/zt_intro/english%E6%98%AD%E9%80%9A/Ezt6.htm
- <http://www.iwmu.com/wkmf97/d-27-1.htm>
- http://www.chtoday.co.kr/template/news_view.htm?code=mis&id=1879